
세계경제포럼(WEF) 2025 관광발전지수 심층분석 및 시사점

이성빈(관광정책연구실 연구원)*
김가윤(관광정책연구실 연구원)**

*bbin6715@kcti.re.kr / Tel : 02-2669-8416

**kgy@kcti.re.kr / Tel : 02-2669-6970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2위’를 기록
 - 2025년 기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110개 평가대상 국가 중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23년 13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결과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관광발전지수 심층분석을 통한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관광발전지수(TTDI: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는 5대 분야, 17개 부문, 10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국가별 관광발전 여건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됨
 - 우리나라는 2023년 대비 종합순위가 상승하고 5대 평가 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개선되었으나, 세부 분야와 지표별로는 상대적인 강점과 개선 필요 요소가 상이하게 나타남
 - 이에 따라 분야·부문·세부지표별 평가 결과와 순위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관광발전 여건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2025년 세계경제포럼(WEF) 관광발전지수의 분야·부문·세부지표별 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발전 여건의 상대적 강점과 개선 필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광발전 수준의 변화 특성을 검토하고, 글로벌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광발전 전략 및 향후 정책과제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II. 관광발전지수 구성 및 현황

1.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지표 체계

□ 5개 분야, 17개 부문, 102개 세부지표로 구성

- 2025년 관광발전지수는 5대 분야(dimension), 17개 부문(pillar), 102개 세부지표(indicator)로 2023년 개편된 지표체계를 유지함
- 현 지표는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일부 지표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활용 가능 데이터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됨
- 특히, 관광의 지속가능성 분야는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있음

〈표 II-1〉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분야 및 부문별 순위 변화(2023년 대비)

분야 (5)	환경 조성 (38개 지표)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12개 지표)	인프라 및 서비스 (14개 지표)	관광 자원 (14개 지표)	관광의 지속가능성 (24개 지표)
	18위(1 ↑)	47위(1 ↑)	25위(1 ↑)	14위(2 ↑)	13위(7 ↑)
부문 (17)	기업 환경 (7개 지표)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4개 지표)	항공 운송 인프라 (4개 지표)	자연 자원 (5개 지표)	환경 지속가능성 (15개 지표)
	안전 및 보안 (5개 지표)				
	보건 및 위생 (5개 지표)	관광개방성 (4개 지표)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6개 지표)	문화 자원 (5개 지표)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4개 지표)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13개 지표)				
	정보통신기술 (ICT) 준비수준 (8개 지표)	가격경쟁력 (4개 지표)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4개 지표)	비(非) 레저 자원 (4개 지표)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5개 지표)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2.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종합 순위

□ 우리나라는 110개 국가 중 12위(총점 4.90점) 기록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발전지수는 종합순위 12위로, '23년(13위) 대비 1단계 상승했으며, '19년(14위) 대비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18개 국가 중 일본(1위), 중국(8위)에 이어 3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싱가포르(13위), 인도네시아(23위), 말레이시아(26위) 등 전통적인 동남아시아 관광 강국을 상회함

□ 글로벌 Top 10 관광 강국 진입 가시화, 지속적 순위 상승세

- 우리나라는 총점 4.90점으로 이탈리아(10위, 4.92점) 및 포르투갈(11위, 4.91점)과 근소한 차이를 보여 글로벌 Top 10 관광 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우리나라 성과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순위 상승세를 유지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표 II-2〉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세계 상위 30개국 현황

순위	순위(변동)		국가	순위	순위(변동)		국가
	'19	'23			'19	'23	
1	4 (3)	3 (2)	일본	16	17 (1)	16 (-)	덴마크
2	1 (△1)	2 (-)	미국	17	16 (△1)	17 (-)	네덜란드
3	2 (△1)	1 (△2)	스페인	18	19 (1)	18 (-)	스웨덴
4	7 (3)	6 (2)	호주	19	18 (△1)	20 (1)	핀란드
5	6 (1)	4 (△1)	프랑스	20	20 (-)	23 (3)	아일랜드
6	5 (△1)	5 (△1)	독일	21	25 (4)	21 (-)	그리스
7	3 (△4)	7 (-)	영국	22	26 (4)	19 (△3)	아랍에미리트
8	10 (2)	8 (-)	중국	23	35 (12)	22 (△1)	인도네시아
9	9 (-)	10 (1)	스위스	24	22 (△2)	24 (-)	벨기에
10	13 (3)	9 (△1)	이탈리아	25	21 (△4)	28 (3)	뉴질랜드
11	12 (1)	12 (1)	포르투갈	26	28 (2)	39 (13)	말레이시아
12	14 (2)	13 (1)	대한민국	27	24 (△3)	25 (△2)	룩셈부르크
13	8 (△5)	14 (1)	싱가포르	28	32 (4)	26 (△2)	폴란드
14	11 (△3)	11 (△3)	캐나다	29	46 (17)	32 (3)	사우디아라비아
15	15 (-)	15 (-)	오스트리아	30	30 (-)	31 (1)	키프로스

자료: WEF(2026.9.25.).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3.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분야·부문별 현황

□ 2025년 5대 분야 모두 '23년 대비 순위 상승

- (환경 조성: 18위) 세부 부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준비수준(1위) 및 보건·위생(12위) 부문은 상위권 유지, 기업환경(30위) 및 인적자원·노동시장(36위) 부문은 다소 낮은 순위를 보임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47위) 5대 분야 중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저조한 분야, 부문으로 살펴 보면 가격경쟁력(65위) 및 관광정책의 우선순위(52위) 부문에서 개선의 여지가 보임
- (인프라 및 서비스: 25위) 육상·항만 운송(9위), 항공 운송(20위) 등 교통 인프라 관련 부문은 상위권, 관광객 서비스·인프라(47위→53위) 부문은 순위 하락함
- (관광 자원: 14위) 비레저 자원(9위) 및 문화 자원(10위) 부문에서 상위 10위권 진입한 반면 자연 자원(67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관광의 지속가능성: 13위) 5대 분야 중 순위가 가장 크게 상승한 분야(20위→13위), 세부 부문 가운데 특히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61위→42위) 부문이 가장 크게 개선됨

〈표 II-3〉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분야 및 부문별 순위 현황

5개 분야	17개 부문	'25년	'23년(증감)	'19년(증감)
환경 조성 18위(1 ↑) 5.76점(0.06 ↑)	기업 환경	30	36(6)	36(6)
	안전 및 보안	25	19(△6)	35(10)
	보건 및 위생	12	12(-)	12(-)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36	39(3)	34(△2)
	정보통신기술(ICT) 준비수준	1	1(-)	2(1)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47위(1 ↑) 4.51점(-)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52	56(4)	48(△4)
	관광개방성	36	37(1)	35(△1)
	가격경쟁력	65	66(1)	76(11)
인프라 및 서비스 25위(1 ↑) 4.59점(0.25 ↑)	항공 운송 인프라	20	25(5)	21(1)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9	9(-)	10(1)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53	47(△6)	47(△6)
관광 자원 14위(2 ↑) 4.43점(0.41 ↑)	자연 자원	67	73(6)	75(8)
	문화 자원	10	10(-)	12(2)
	비(非)레저 자원 ¹⁾	9	12(3)	12(3)
관광의 지속가능성 13위(7 ↑) 4.65점(0.10 ↑)	환경 지속가능성	44	41(△3)	45(1)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16	22(6)	16(-)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42	61(19)	62(20)

주1) 비레저 자원 : 글로벌도시, 기업, 대학 등 비즈니스 및 비레저 목적의 방문을 유발하는 요인의 규모와 매력도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Ⅲ. 2025년 관광발전지수 심층분석

1. 세부 지표별 분석

- 환경 조성·인프라 및 서비스 지표의 강점 지속, 관광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선
- 2025년 관광발전지수 102개 세부지표 중 우리나라가 상위 10위권을 기록한 지표는 총 27개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6개 지표가 1위를 기록함
 - 분야별로는 환경 조성 11개, 관광 자원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 각각 5개, 인프라 및 서비스 4개,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2개 지표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 디지털·교통 인프라와 안전·위생 여건은 우리나라 관광의 안정적인 강점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강점을 관광객의 이동·이용 편의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 이미지 제고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은 2023년 33위에서 2025년 4위로 29계단 상승하여 102개 세부지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순위 개선을 보였으며, 관광 수요의 지역 분산과 문화·자연 관광지 관심 집중도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됨
- 관광수요의 계절적 집중 완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의 개선은 우리나라 관광의 강점 영역이 인프라 중심에서 관광수요·경제·환경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흐름을 비수기 수요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체류·소비 증대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비레저 관광 디지털 수요는 2023년 15위에서 2025년 9위로 6계단 상승하여 10위권 내로 진입하였으며, 기업출장·교육 등 비레저 목적의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기존 문화자원의 강점을 K-콘텐츠, 지역문화, 스포츠 및 비레저 관광수요와 연계하여 관광콘텐츠와 방한 목적을 다변화하고, 지역 체류와 관광소비 확대에 연결할 필요가 있음

〈표 Ⅲ-1〉 관광발전지수 10위권 세부지표 및 순위 변화

분야	세부 지표명	'25년	'23년(증감)	'19년(증감)
환경 조성 (11개)	조직적 폭력	1	1(-)	1(-)
	기본 위생시설 이용률	1	1(-)	1(-)

분야	세부 지표명	'25년	'23년(증감)	'19년(증감)
	기본 식수 이용률	1	1(-)	1(-)
	병상 밀도	1	2(1)	2(1)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	3(1)	5(3)
	고등교육 이수 노동력 비율	5	6(1)	4(△1)
	숙박·음식·레저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5	8(3)	15(10)
	전력 손실률	6	5(△1)	6(1)
	살인 사건 발생률	7	12(5)	19(12)
	운송·배송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8	2(6)	5(△3)
	인터넷 이용자 비율	10	10(1)	8(△2)
관광의 지속가능성 (5개)	에너지 효율 규제	1	1(1)	10(9)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4	33(29)	9(5)
	생활하수 안전처리 비율	5	6(1)	3(△2)
	관광 고용 승수	5	6(1)	3(△2)
	관광 GDP 승수	9	12(3)	8(△1)
관광 자원 (5개)	유네스코 창의도시 수	4	5(1)	5(1)
	인류무형문화유산 수	6	3(△1)	2(△4)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 본사 소재	6	6(-)	11(5)
	비레저 관광 디지털 수요 (비즈니스·교육·의료관광 관련 전 세계 온라인 검색량)	9	15(6)	12(3)
	대형 스포츠 경기장 수	10	8(△2)	8(△2)
인프라 및 서비스 (4개)	철도 서비스 효율성	3	4(1)	3(-)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	3	3(-)	4(1)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5	5(-)	8(3)
	도로 품질	6	6(-)	11(5)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2개)	월별·분기별 관광 통계 제공 적시성	1	1(-)	8(7)
	여권 이동성 점수	2	2(-)	3(1)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 자연환경·노동시장 관련 지표의 상대적 취약성

- 2025년 관광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2개 세부지표 중 36개 지표가 50위 이하로 나타났고, 34개 지표는 2019년에도 50위 이하를 기록하여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체 세부지표의 약 35%에 해당하며, 분야별로 환경 조성 및 관광의 지속가능성이 각각 11개,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7개, 관광 자원 4개, 인프라 및 서비스 3개 지표가 포함됨
- 2025년 우리나라의 상대적 취약 지표는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환경 지속가능성·자연자원, 노동시장 및 관광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남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는 47위로 5대 평가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정부 예산 대비 관광 지출 76위, 현지인 환대 평판 지수 65위, 항공 서비스 협정 수 62위 등 관광정책의 우선순위와 관광개방성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가격경쟁력에서도 구매력평가 78위, 단기 임대 숙소 가격 57위, 유류 가격 55위, 호텔 가격 지수 51위 등 모든 세부지표가 50위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호텔 객실 수와 숙박·음식업 노동생산성 등 관광서비스 공급 기반도 지속적으로 하위권에 머무름

- 환경 지속가능성 및 자연자원에서는 적색목록지수 105위, 물 스트레스 수준 96위, 국토 대비 보호구역 비율 91위, 육상·담수 생태지역 수 85위 등 국토·생태 여건과 관련한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노동시장 및 관광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관광 고임금 일자리 비중이 109위로 전체 세부지표 중 가장 낮았으며, 고용·해고 관행 88위, 고용 기회 균등 80위, 노동자 권리 75위 등 고용 여건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함

〈표 III-2〉 관광발전지수 50위 이하권 세부지표 및 순위 변화

분야	세부 지표명	'25년	'23년(증감)	'19년(증감)
환경 조성 (11개)	고용·해고 관행	88	92(4)	67(△21)
	고용 기회 균등	80	85(5)	70(△10)
	노동자 권리	75	78(3)	78(3)
	정부 규제 부담	69	79(10)	63(△6)
	무역 세계화(제도)	57	62(5)	63(6)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7	65(8)	66(9)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57	55(△2)	63(6)
	인구 대비 의사 수	56	53(△3)	54(△2)
	지역 경찰 신뢰도	52	52(-)	68(16)
	유연근무제	52	46(△6)	35(△17)
	정책 안정성 보장	50	55(5)	63(13)
관광의 지속가능성 (11개)	관광 고임금 일자리 비중	109	110(1)	109(-)
	적색목록지수(생물종의 멸종위험 지수)	105	104(△1)	104(△1)
	물 스트레스 수준(가용 담수자원 대비 취수량)	96	96(-)	95(△1)
	국토 대비 보호구역 비율	91	91(-)	86(△5)
	자연 관광지 관심 집중도	89	100(11)	104(15)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보호 비율	73	73(-)	72(△1)
	초미세먼지(PM2.5) 농도	70	65(△5)	70(-)
	관광 수요의 지역 분산	65	85(20)	78(13)
	관광 온실가스 집약도	63	56(△7)	64(1)
	관광 에너지 집약도	59	57(△2)	65(6)
	문화 관광지 관심 집중도	55	72(17)	93(38)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7개)	구매력평가(PPP)	78	86(8)	88(10)
	정부 예산 대비 관광 지출	76	75(△1)	73(△3)
	현지인 현대 평판 지수	65	70(5)	70(5)
	항공 서비스 협정 수	62	62(-)	59(△3)
	단기 임대 숙소 가격	57	59(2)	56(△1)
	유류 가격	55	40(△15)	67(12)
	호텔 가격 지수	51	53(2)	48(△3)
관광 자원 (4개)	육상·담수 생태지역 수	85	85(-)	85(-)
	보호구역 면적	70	69(△1)	66(△4)
	알려진 생물종 수	61	64(3)	64(3)
	자연관광 디지털 수요	51	69(18)	66(15)
인프라 및 서비스 (3개)	인구 대비 호텔 객실 수	69	68(△1)	69(-)
	숙박·음식업 노동생산성	69	65(△4)	72(3)
	인구 대비 단기 임대 숙소 수	59	63(4)	61(2)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2. 유형별 세부 지표 분석

□ 관광 관련성 기준 지표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 관광발전지수의 102개 세부지표는 관광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뿐만 아니라, 국가의 광범위한 환경적 여건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됨
- 관광 관련성을 기준으로 관광지표와 일반지표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표의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표 III-3〉 관광 관련성 기준 관광발전지수 유형화

구분	지표수	특성	지표 예시	평균 점수*		
				한국	상위 10개국	차이
관광지표	45개	관광산업 및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지표	정부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 호텔 객실 수,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비자 요건, 항공 서비스 협정 수,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 등	4.72	4.85	△0.13
일반지표	57개	안전·보건·교육·디지털·환경 등 국가 전반적인 여건 지표	국가 신용 등급, 병상 밀도, 경제활동 참가율, 해양 수질 청정도 등	5.08	5.42	△0.34
총합	102개	-	-	4.90	5.18	△0.28

주) 점수: 지표값을 1~7점으로 정규화한 값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관광 관련 지표가 관광발전지수 순위 상승 견인

- 우리나라와 상위 10개국 국가 간 '관광지표'의 점수 차이(△0.13)보다 '일반지표' 점수 차이(△0.34)가 약 2.6배 크게 나타남
 - (관광지표) 관광산업 및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광지표(45개)'에서 우리나라는 4.72점을 기록했으며, 상위 10개국 평균(4.85점)과 격차가 0.13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임
 - (일반지표) 국가 전반의 여건을 나타내는 '일반지표(57개)'에서 우리나라는 5.08점으로, 상위 10개국(5.42점)과 0.34점의 큰 격차를 보임
 - (종합) 우리나라의 관광발전지수 종합 점수는 4.90점(12위)으로, 상위 10개국 평균인 5.18점 과 0.28점 차이가 나타남

□ 관광지표 45개 중 24개 지표(57.1%)에서 상위 10개국보다 우위

- 관광지표에 해당하는 45개 지표 중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지표는 24개(57.1%)로 나타남
 - 월별·분기별 관광 통계 제공 적시성, 인류무형문화유산 수, 유네스코 창의도시 수, 비레저 관광 디지털 수요, 관광 고용 승수,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관광산업 고용 성별 균형 등이 대표적 지표임

〈표 III-4〉 관광지표(45개) 지표별 점수 현황

번호	지표명	내용	한국	상위 10개국
6.03	월별·분기별 관광 통계 제공 적시성	국제관광객 수·관광수입의 월별·분기별 자료제공 기간수	7.00	6.72
13.02	인류무형문화유산 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종목 수	7.00	4.71
13.05	유네스코 창의도시 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도시 수	7.00	6.28
14.04	비레저 관광 디지털 수요	비즈니스·교육·의료관광 관련 전 세계 온라인 검색량	7.00	6.55
16.02	관광 고용 승수	관광 직접 고용 대비 간접·유발 고용 비율	7.00	3.68
17.02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연간 해외 관광객 중 입국이 가장 많은 3개월의 비중	6.81	5.88
9.04	공항 연결성 점수	세계 항공 네트워크와 연결된 정도의 연결성 지수	6.71	6.87
16.04	관광산업 고용 성별 균형	관광 고용에서 남성과 여성 비중의 차이	6.70	6.67
10.05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 서비스의 효율성	6.37	5.17
10.03	철도 서비스 효율성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빈도·정시성·속도·가격)	6.16	5.03
9.01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항공 운송 서비스의 효율성	6.13	5.48
5.07	숙박·음식·레저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숙박·음식·레저 서비스에 디지털 플랫폼 활용 정도	6.07	5.43
10.01	도로 품질	도로 인프라의 품질과 범위	5.99	5.40
7.04	여권 이동성 점수	자국 여권으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국가 수	5.94	5.59
8.04	단기 임대 숙소 가격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숙소의 평균 일일 요금(US\$)	5.76	3.81
16.01	관광 GDP 승수	관광 직접 GDP 대비 간접·유발 GDP 비율	5.58	4.55
11.04	관광 자본투자 집약도	관광부문 총투자 1인당 관광 자본투자액(US\$)	5.57	4.47
13.03	대형 스포츠 경기장 수	수용 인원 2만 석 이상 경기장 수	5.54	5.70
15.01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관광 GDP 1달러당 온실가스 배출량	5.31	6.19
6.04	국가 브랜드 전략 평가	국가관광기구 웹사이트 홍보 내용 및 검색 수요의 일치도	5.16	4.77
10.06	항만 서비스 효율성	항만(여객선·보트) 서비스의 효율성	5.10	5.08
7.03	Travelsat 현대 평판 지수	온라인 상 현지 주민 현대에 대한 여론 수치화한 평판 지수	5.09	5.39
15.02	관광산업 에너지 집약도	관광 GDP 1달러당 에너지 사용량	4.98	5.97
6.02	연간 관광통계의 포괄성	UN Tourism 30개 관광통계 자료 제공 건수('18~'21년)	4.75	5.20
10.02	도로 밀도	국토 100㎢당 도로 연장(km)	4.59	5.16
7.01	비자 요건	무비자·도착비자·전자비자 방문 가능 세계 인구 비율	4.43	2.41
8.01	호텔 가격 지수	중급·고급 호텔의 연평균 객실 요금(US\$)	4.14	2.91
17.01	해외 관광객 평균 체류일수	해외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	4.03	3.26
13.01	세계문화유산 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	4.00	5.60
15.03	관광산업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관광부문 에너지 중 저탄소 에너지 비중	3.93	3.65
13.04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 수요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관련 온라인 검색량	3.68	5.39
17.05	관광의 지리적 분산	외국인 방문객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된 정도	3.55	4.59
10.04	철도 밀도	국토 100㎢당 철도 연장(km)	3.48	3.91
7.02	항공 서비스 협정 수	자유화 수준으로 가중한 항공 서비스 협정 체결 수	3.02	5.83
12.04	자연관광 디지털 수요	해변·국립공원 등 자연관광 관련 글로벌 온라인 검색량	2.72	6.06
12.01	세계자연유산 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수	2.60	5.68
6.01	정부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	정부 총소비지출 중 관광 관련 지출 비율	2.46	3.62
11.03	숙박·음식업 노동생산성	숙박·음식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PPP 달러)	2.42	5.22
17.03	문화 명소 관심 집중도	트립어드바이저 문화 명소 조회수 중 상위 10% 비중	2.31	1.61
11.01	호텔 객실 수	인구 100명당 호텔 객실 수	2.10	4.52
17.04	자연 명소 관심 집중도	트립어드바이저 자연 명소 조회수 중 상위 10% 비중	2.00	1.97
11.02	단기 임대 숙소 수	인구 1만 명당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숙소 수	1.83	4.18
16.03	관광산업 고임금 일자리 비중	관광 직접 일자리 중 고임금 업종 일자리 비중	1.15	2.45
9.02	주간 가용 좌석 킬로미터	자국 출발 항공편 주간(좌석수×비행거리)을 인구로 나눈 값	n/a	n/a
9.03	운항 항공사 수	자국 출발 정기 여객편을 운항하는 항공사 수	n/a	n/a
총 47개 지표 평균 점수			4.72	4.85

주) 한국이 상위 10개국 평균 점수보다 높은 지표값에 음영 처리.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3. 분야·부문별 상위권 국가 분석

□ 5개 분야별 10위권 진입 빈도 종합 결과, 스위스 2개 부문 1위

- 5개 부문별 10위권 국가를 살펴본 결과, 스위스가 '환경 조성' 및 '인프라 및 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
- (국가별 10위권 진입 빈도) 국가별 10위권 진입 빈도를 종합하면, 미국 4회, 싱가포르·프랑스 3회, 스위스·덴마크·오스트리아·캐나다·인도네시아·스페인·영국·호주·브라질 2회 순으로 파악됨
 - 미국은 5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며, 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 국가로 나타남

□ 분야별 상위권 국가 특성 및 경쟁력 제고 시사점 제시

- (환경 조성) 10위권 국가 모두 고소득 국가이자 유럽 국가로 구성됨
 - 선진국 중심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이 관광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반의 기반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기타 국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국가의 종합경쟁력과 관광정책 경쟁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며, 관광산업에 특화된 정책·제도를 단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분야로 파악됨
- (인프라 및 서비스) 10위권 국가 모두 고소득 국가이자 관광 매력도가 높은 국가로 구성됨
 -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관광객 이동 및 체류와 직결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광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적 확대와 더불어 품질의 고도화가 제고되어야 함
- (관광 자원) 고소득 국가와 기타 국가가 상위권에 고르게 나타남
 - 해당 국가가 보유한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 매력도가 크게 작용하므로, 자원을 보존하여 고부가 관광 수요로 전환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 (관광의 지속가능성) 5개 분야 중 국가의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 수준 또는 특정 대륙에 편중되지 않고 국가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분야로, 관광의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의지를 통해 관광 경쟁력 제고가 가능함

〈표 III-5〉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5개 분야별 10위권 국가 현황

부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환경 조성	스위스 (9위)	덴마크 (16위)	싱가포르 (13위)	룩셈부르크 (27위)	핀란드 (19위)	오스트리아 (15위)	아이슬란드 (34위)	독일 (6위)	스웨덴 (18위)	벨기에 (24위)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인도네시아 (23위)	이집트 (63위)	말레이시아 (26위)	스리랑카 (69위)	조지아 (40위)	네팔 (86위)	튀니지 (82위)	탄자니아 (74위)	모리셔스 (59위)	헝가리 (42위)
인프라 및 서비스	스위스 (9위)	스페인 (3위)	싱가포르 (13위)	미국 (2위)	프랑스 (5위)	덴마크 (16위)	포르투갈 (11위)	오스트리아 (15위)	네덜란드 (17위)	그리스 (21위)
관광 자원	중국 (8위)	일본 (1위)	미국 (2위)	인도 (31위)	프랑스 (5위)	멕시코 (41위)	영국 (7위)	스페인 (3위)	호주 (4위)	브라질 (32위)
관광의 지속가능성	칠레 (35위)	호주 (4위)	뉴질랜드 (25위)	코스타리카 (51위)	케냐 (77위)	미국 (2위)	브라질 (32위)	영국 (7위)	핀란드 (19위)	인도네시아 (23위)

주1) 음영 처리: 고소득 국가(상계서 p.66 소득 계층 분류 기준 상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 13,935달러 초과 국가)

주2) 괄호 안 순위: 종합순위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 17개 부문별 10위권 진입 빈도 종합 결과, 스위스 8개 부문 1위

- 17개 부문별 10위권 빈도를 종합한 결과, 스위스가 8개 부문에서 10위권에 진입했고, 이어 싱가포르와 덴마크가 각각 7개 부문에서 10위권 진입함
- (국가별 1위 빈도) 국가별 1위 빈도를 종합하면, 싱가포르가 기업 환경, 안전 및 보안, 관광개방성,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일본이 문화자원, 비레저 자원 등 2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함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준비수준(1위) 등 4개 부문에서 10위권 진입

-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준비수준(1위)을 비롯해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9위), 비레저 자원(9위), 문화 자원(10위) 등 총 4개 부문에서 10위권에 진입함
- 아시아 주요국의 10위권 진입 빈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7회, 종합 13위), 중국(6회, 종합 8위), 일본(5회, 종합 1위), 우리나라(4회, 종합 12위) 순으로, 부문별 상위권과 종합 순위가 반드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III-6〉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17개 부문별 10위권 국가 현황

부문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기업 환경	싱가포르 (13위)	룩셈부르크 (27위)	스위스 (9위)	핀란드 (19위)	스웨덴 (18위)	호주 (4위)	미국 (2위)	덴마크 (16위)	캐나다 (14위)	벨기에 (24위)
안전 및 보안	싱가포르 (13위)	카타르 (47위)	사우디 아라비아 (29위)	아이슬란드 (34위)	스위스 (9위)	핀란드 (19위)	쿠웨이트 (88위)	바레인 (55위)	베트남 (52위)	룩셈부르크 (27위)
보건 및 위생	오스트리아 (15위)	독일 (6위)	불가리아 (39위)	체코 (37위)	리투아니아 (49위)	루마니아 (43위)	헝가리 (42위)	그리스 (21위)	프랑스 (5위)	일본 (1위)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덴마크 (16위)	이스라엘 (50위)	호주 (4위)	아이슬란드 (34위)	스웨덴 (18위)	핀란드 (19위)	스위스 (9위)	싱가포르 (13위)	아일랜드 (20위)	에스토니아 (44위)
정보통신기술 준비수준	대한민국 (12위)	덴마크 (16위)	네덜란드 (17위)	룩셈부르크 (27위)	핀란드 (19위)	아이슬란드 (34위)	스위스 (9위)	중국 (8위)	이스라엘 (50위)	싱가포르 (13위)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인도네시아 (23위)	자메이카 (78위)	코스타리카 (51위)	모리셔스 (59위)	도미니카 공화국 (66위)	스리랑카 (69위)	이집트 (63위)	키프로스 (30위)	몰타 (33위)	아이슬란드 (34위)
관광개방성	싱가포르 (13위)	아랍 에미리트 (22위)	벨기에 (24위)	네덜란드 (17위)	말레이시아 (37위)	체코 (37위)	덴마크 (16위)	독일 (6위)	스페인 (3위)	포르투갈 (11위)
가격경쟁력	이집트 (63위)	카자흐스탄 (56위)	말레이시아 (26위)	네팔 (86위)	인도네시아 (23위)	인도 (31위)	베트남 (52위)	알제리 (89위)	파라과이 (85위)	앙골라 (105위)
항공 운송 인프라	아랍 에미리트 (22위)	미국 (2위)	스페인 (3위)	싱가포르 (13위)	영국 (7위)	스위스 (9위)	네덜란드 (17위)	그리스 (21위)	호주 (4위)	캐나다 (14위)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싱가포르 (13위)	스위스 (9위)	네덜란드 (17위)	일본 (1위)	룩셈부르크 (27위)	벨기에 (24위)	덴마크 (16위)	독일 (6위)	대한민국 (12위)	체코 (37위)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아이슬란드 (34위)	키프로스 (30위)	스페인 (3위)	그리스 (21위)	크로아티아 (46위)	오스트리아 (15위)	포르투갈 (11위)	덴마크 (16위)	스위스 (9위)	몰타 (33위)
자연 자원	미국 (2위)	호주 (4위)	멕시코 (41위)	브라질 (32위)	중국 (8위)	캐나다 (14위)	인도 (31위)	프랑스 (5위)	인도네시아 (23위)	콜롬비아 (54위)
문화 자원	일본 (1위)	중국 (8위)	독일 (6위)	이탈리아 (10위)	프랑스 (5위)	스페인 (3위)	영국 (7위)	멕시코 (41위)	인도 (31위)	대한민국 (12위)
비레저 자원	일본 (1위)	미국 (2위)	중국 (8위)	캐나다 (14위)	영국 (7위)	호주 (4위)	독일 (6위)	인도 (31위)	대한민국 (12위)	프랑스 (5위)
환경 지속가능성	룩셈부르크 (27위)	슬로베니아 (45위)	스웨덴 (18위)	프랑스 (5위)	슬로바키아 (60위)	오스트리아 (15위)	핀란드 (19위)	스위스 (9위)	영국 (7위)	덴마크 (16위)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파라과이 (85위)	나미비아 (90위)	스리랑카 (69위)	중국 (8위)	핀란드 (19위)	앙골라 (105위)	카자흐스탄 (56위)	브라질 (32위)	칠레 (35위)	루마니아 (43위)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카메룬 (108위)	필리핀 (57위)	모리셔스 (59위)	사우디 아라비아 (29위)	아랍 에미리트 (22위)	코스타리카 (51위)	인도 (31위)	호주 (4위)	오만 (62위)	케냐 (77위)

주1) 음영 처리: 고소득 국가(상계서 p.66 소득 계층 분류 기준 상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 13,935달러 초과 국가)

주2) 괄호 안 순위: 종합순위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를 토대로 연구진 재작성

I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 우리나라 2025년 관광발전지수 종합순위 12위 기록

- 2025년 우리나라 관광발전지수는 4.90점으로 110개국 중 12위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102개 세부지표 중 27개 지표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됨
 - 특히 ICT 준비수준 1위,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9위, 비레저 자원 9위, 문화 자원 10위 등 디지털·교통·문화자원 관련 부문에서 경쟁력이 확인됨
 - 반면 102개 세부지표 중 36개 지표가 50위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34개는 2019년에도 50위 이하에 머물러 일부 취약 영역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ICT 준비 수준·관광수요 분산 강점 확대, 가격경쟁력·일자리 질 등 취약

- 기존의 ICT·교통 인프라와 안전·위생 관련 강점이 유지되는 가운데, 관광수요의 계절·지역 분산과 관광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가 빠르게 개선됨
 -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은 2023년 33위에서 2025년 4위로 상승하였고,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도 61위에서 42위로 개선되는 등 관광 경쟁력의 강점 영역이 인프라 중심에서 수요·지속가능성 측면으로 확대됨
- 반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은 5대 분야 중 가장 낮은 47위를 기록하였으며, 관광재정, 가격경쟁력, 항공 서비스 협정, 숙박 및 관광서비스 공급 기반 등 지표에서 상대적 취약성이 나타남
 - 관광 고용 승수는 세계 5위로 높은 반면 관광 고임금 일자리 비중은 109위로 나타나, 관광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와 일자리의 질 사이에 큰 격차가 확인됨

□ 관광 통계, 외래객 수요의 계절성 등 관광지표에서 강점

- 관광 관련 지표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 반면, 노동시장·환경·제도 등 국가 전반의 여건을 반영하는 일반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가 나타남
 - 특히 관광지표 45개 가운데 관광통계 제공 적시성,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관광 고용 승수 등 24개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함

2. 정책적 시사점

□ 강점 지표의 관광성과 연계와 취약 지표의 중점 개선 필요

- ICT·교통 인프라, 관광수요 분산, 문화·비레저 관광수요 등 기존 강점은 관광객의 이동·체류·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기반의 강점을 예약·결제·이동·관광정보 등 외래관광객의 이용 편의 개선과 연계하고, 관광수요 분산의 개선 흐름을 비수기 수요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관광재정, 항공 접근성, 숙박 및 관광서비스 공급 기반, 관광 일자리의 질 등 정책적으로 개선 가능한 영역은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자원·생태환경 등의 지표는 순위 자체보다 보유 자원의 관광 활용도와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분야·부문별 강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 분야별 상위권 국가 분석 결과, 환경 조성·인프라 및 서비스는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연계되어 단기간 개선에 한계가 있는 반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은 관광재정·관광개방성·서비스 공급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를 우선 개선하되, 환경 조성·인프라 분야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관광 자원과 관광의 지속가능성은 자원의 활용도, 수요 분산, 관리방식 등에 따라 경쟁력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기존 자원의 관광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자연자원의 콘텐츠화와 해외 인지도 제고, 지역관광 연계, 관광수요의 계절·지역 분산 등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한된 자원 여건을 실질적인 관광경쟁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상위권 부문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동시에,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관광개방성 등 정책적 대응이 가능한 부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지표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일반지표 개선 등 종합적 접근 필요

- 관광지표는 상위 10개국과의 점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절반 이상의 지표에서 상위 10개국 평균을 상회하여, 관광산업 및 관광정책과 직접 관련된 영역의 경쟁력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남
 - 관광 통계, 관광수요 분산, 문화·비레저 관광수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존 우위 지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지표 45개 가운데 24개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남
- 반면 노동시장, 환경, 제도 등 일반지표에서는 상위 10개국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관광발전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됨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19	'23			'19	'23			'19	'23	
1	(-3)	(-2)	일본	38	(-1)	(-10)	태국	75	(-13)	(-10)	라오스
2	(+1)	(-)	미국	39	(+1)	(-3)	불가리아	76	(-7)	(+4)	우즈베키스탄
3	(+1)	(+2)	스페인	40	(-8)	(-1)	조지아	77	(+1)	(-2)	케냐
4	(-3)	(-2)	호주	41	(+7)	(+6)	멕시코	78	(-2)	(-4)	자메이카
5	(-1)	(+1)	프랑스	42	(+1)	(+6)	헝가리	79	(+4)	(-1)	몽골
6	(+1)	(+1)	독일	43	(+1)	(-)	루마니아	80	(+6)	(+6)	에콰도르
7	(+4)	(-)	영국	44	(+7)	(+10)	에스토니아	81	(+3)	(-)	북마케도니아
8	(-2)	(-)	중국	45	(+5)	(+1)	슬로베니아	82	(+5)	(+4)	튀니지
9	(-)	(-1)	스위스	46	(+3)	(+1)	크로아티아	83	(-2)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0	(-3)	(+1)	이탈리아	47	(-3)	(-10)	카타르	84	(+5)	(+9)	보츠와나
11	(-1)	(-1)	포르투갈	48	(+3)	(-2)	아르헨티나	85	(-1)	(-2)	파라과이
12	(-2)	(-1)	대한민국	49	(-)	(+3)	리투아니아	86	(-7)	(-8)	네팔
13	(+5)	(-1)	싱가포르	50	(+6)	(+3)	이스라엘	87	(-5)	(-2)	엘살바도르
14	(+3)	(+3)	캐나다	51	(-4)	(+2)	코스타리카	88	(+6)	(+2)	쿠웨이트
15	(-)	(-)	오스트리아	52	(-10)	(-7)	베트남	89	(-5)	(-4)	알제리
16	(-1)	(-)	덴마크	53	(-20)	(-10)	알바니아	90	(+6)	(+7)	나미비아
17	(+1)	(-)	네덜란드	54	(-4)	(+3)	콜롬비아	91	(+2)	(+1)	르완다
18	(-1)	(-)	스웨덴	55	(-2)	(+2)	바레인	92	(+2)	(+1)	볼리비아
19	(+1)	(-1)	핀란드	56	(+5)	(+4)	카자흐스탄	93	(-5)	(-2)	키르기스스탄
20	(-)	(-3)	아일랜드	57	(-12)	(-8)	필리핀	94	(+7)	(+2)	과테말라
21	(-4)	(-)	그리스	58	(+6)	(+3)	아제르바이잔	95	(+4)	(+7)	파키스탄
22	(-4)	(+3)	아랍에미리트	59	(+6)	(+3)	모리셔스	96	(+1)	(-1)	잠비아
23	(-12)	(+1)	인도네시아	60	(+6)	(+6)	슬로바키아	97	(+1)	(+1)	가나
24	(+2)	(-)	벨기에	61	(-)	(+3)	남아프리카공화국	98	(-2)	(-)	방글라데시
25	(+4)	(-3)	뉴질랜드	62	(+2)	(-2)	오만	99	(-3)	(-)	세네갈
26	(-2)	(-13)	말레이시아	63	(-7)	(+2)	이집트	100	(+1)	(-)	니카라과
27	(+3)	(+2)	룩셈부르크	64	(-2)	(+4)	페루	101	(-)	(-)	짐바브웨
28	(-4)	(+2)	폴란드	65	(+6)	(+3)	파나마	102	(-4)	(-1)	코트디부아르
29	(-17)	(-3)	사우디아라비아	66	(+3)	(-)	도미니카공화국	103	(+6)	(+1)	온두라스
30	(-)	(-1)	키프로스	67	(+11)	(-1)	라트비아	104	(-1)	(-3)	나이지리아
31	(+4)	(-9)	인도	68	(-)	(+1)	세르비아	105	(+2)	(-)	앙골라
32	(+1)	(+5)	브라질	69	(+4)	(-4)	스리랑카	106	(+2)	(+2)	베냉
33	(+4)	(+3)	몰타	70	(-1)	(-7)	모로코	107	(-)	(-1)	말라위
34	(+11)	(+5)	아이슬란드	71	(+4)	(+1)	우루과이	108	(-)	(+2)	카메룬
35	(-1)	(-3)	칠레	72	(+8)	(+1)	아르메니아	109	(-)	(-)	시에라리온
36	(-11)	(-1)	튀르키예	73	(+1)	(+4)	요르단	110	(-)	(-)	말리
37	(+4)	(+4)	체코	74	(-7)	(-2)	탄자니아				

주: 변동 = 2025년 순위 - 해당 연도 순위(- 순위 상승, + 순위 하락, 0 동일)
 2019·2023년은 WEF 2026년판 재산출 기준(110개국)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edition data.

참고 2

2025 WEF 관광발전지수 지표별 1위 국가

구분	지표명	1위 국가	구분	지표명	1위 국가
A	환경 조성	스위스	9.01	항공 운송 서비스 효율성	싱가포르
A.01	기업 환경	싱가포르	9.02	주간 가용 착석 킬로미터	카타르
1.01	법치주의	핀란드	9.03	운항 항공사 수	미국
1.02	정부 규제 부담	싱가포르	9.04	공항 연결성 점수	미국
1.03	정부의 정책 안정성 보장	싱가포르	C.10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싱가포르
1.04	국가 신용등급	스위스 외 6개국	10.01	도로 품질	싱가포르
1.05	법률상 금융 세계화	룩셈부르크	10.02	도로 밀도	싱가포르
1.06	법률상 무역 세계화	룩셈부르크	10.03	철도 서비스 효율성	일본
1.07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이스라엘	10.04	철도 밀도	싱가포르
A.02	안전 및 보안	싱가포르	10.05	대중교통 서비스 효율성	싱가포르
2.01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카타르, 르완다	10.06	항만 서비스 효율성	싱가포르
2.02	아간 보행 안전	싱가포르	C.11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아이슬란드
2.03	살인 사건 발생률	싱가포르	11.01	호텔 객실 수	그리스
2.04	세계 테러 지수	싱가포르 외 38개국	11.02	단기 임대 숙소 수	크로아티아
2.05	조직적 폭력	대한민국 외 58개국	11.03	숙박·음식업 노동생산성	아제르바이잔
A.03	보건 및 위생	오스트리아	11.04	관광 자본투자 집약도	아일랜드
3.01	의사 수	그리스	D	관광 자원	중국
3.02	기본 위생시설 이용률	대한민국 외 31개국	D.12	자연 자원	미국
3.03	기본 식수 이용률	대한민국 외 48개국	12.01	세계자연유산 수	중국
3.04	병상 밀도	대한민국	12.02	알려진 생물종 수	브라질
3.05	감염병 발생률	이탈리아	12.03	보호구역 총면적	호주
A.04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덴마크	12.04	자연관광 디지털 수요	이탈리아
A.04.01	노동력의 자격 수준	이스라엘	12.05	육상·담수 생태지역 수	미국
4.01	중등교육 이상 이수 노동력 비율	일본	D.13	문화 자원	일본
4.02	고등교육 이상 이수 노동력 비율	캐나다	13.01	세계문화유산 수	이탈리아
4.03	중등교육의 질	싱가포르	13.02	인류무형문화유산 수	중국
4.04	고등교육의 질	이스라엘	13.03	대형 스포츠 경기장 수	중국
A.04.02	노동시장 역동성	카타르	13.04	문화·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 수요	영국
4.05	고용 및 해고 관행	덴마크	13.05	유네스코 창의도시 수	중국
4.06	숙련 인력 확보 용이성	알바니아	D.14	비례적 자원	일본
4.07	유연근무제	이스라엘	14.01	포브스 글로벌 2000 기업 본사 소재	스위스
4.08	경제활동 참가율	카타르	14.02	글로벌 도시 보유	중국
A.04.03	노동시장 회복력 및 평등	덴마크	14.03	상위권 대학 수	미국
4.09	동등한 고용 기회	이스라엘	14.04	비례적 관광 디지털 수요	미국
4.10	노동자 권리	덴마크 외 5개국	E	관광의 지속가능성	칠레
4.11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베냉	E.15	환경 지속가능성	룩셈부르크
4.12	사회보장 기본 적용률	덴마크 외 13개국	E.15.01	관광 에너지 지속가능성	슬로베니아
4.13	사회보장 지출	핀란드	15.01	관광산업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룩셈부르크
A.05	정보통신기술 준비 수준	대한민국	15.02	관광산업 에너지 집약도	룩셈부르크
5.01	인터넷 이용자 비율	바레인 외 3개국	15.03	관광산업 저탄소 에너지 사용 비중	아이슬란드
5.02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프랑스	15.04	재생에너지 규제	덴마크
5.03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 건수	일본	15.05	에너지 효율 규제	대한민국
5.04	3G 모바일 네트워크 커버리지	싱가포르 외 22개국	E.15.02	오염 및 환경 여건	스위스
5.05	디지털 결제 이용률	덴마크	15.06	초미세먼지(PM2.5) 농도	핀란드
5.06	운송·배송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이스라엘	15.07	물 스트레스 수준	볼리비아
5.07	숙박·음식·레저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이스라엘	15.08	적색목록지수	리투아니아
5.08	전력 손실률	싱가포르	15.09	산림 손실률	모리셔스
B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인도네시아	15.10	생활하수 안전처리 비율	싱가포르, 쿠웨이트
B.06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인도네시아	15.11	해양 수질 청정도	호주
6.01	정부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	도미니카공화국	E.15.03	자연 보전	룩셈부르크
6.02	연간 관광통계의 포괄성	사우디아라비아	15.12	환경 조약 비준 수	핀란드 외 6개국
6.03	월별·분기별 관광 통계 제공 적시성	대한민국 외 79개국	15.13	자연 보호의 적절성	코스타리카
6.04	국가 브랜드 전략 평가	이집트	15.14	보호구역 비율	영국
B.07	관광개발성	싱가포르	15.15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보호 비율	볼리비아
7.01	비자 요건	말레이시아	E.16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파라과이
7.02	항공 서비스 협정 수	미국	16.01	관광 GDP 승수	중국
7.03	Travelsat 환대 평판 지수	슬로베니아	16.02	관광 고용 승수	나미비아
7.04	여권 이동성 점수	싱가포르	16.03	관광산업 고임금 일자리 비중	르완다
B.08	가격경쟁력	이집트	16.04	관광산업 고용 성별 균형	베트남
8.01	호텔 가격 지수	중국	E.17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카메룬
8.02	구매력 평가(PPP)	나이지리아	17.01	해외 관광객 평균 체류일수	인도
8.03	연료 가격 수준	쿠웨이트	17.02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	페루
8.04	단기 임대 숙소 가격	볼리비아	17.03	문화 명소 관심 집중도	시에라리온
C	인프라 및 서비스	스위스	17.04	자연 명소 관심 집중도	말리
C.09	항공 운송 인프라	아랍에미리트	17.05	관광의 지리적 분산	아제르바이잔

주: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표는 대한민국이 1위인 지표를 의미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edition data.